전남도, 1조8000억 국도·국지도 착공 앞당긴다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여수~남해 해저터널 상반기 발주 등 추진

전남도가 지난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한 사업들에 대해 서둘러 실시설계, 착공에 나서고 있다. 사업비의 규모가 커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지역민, 방문객 등의 편의를 신속히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신안 비금~암태 ▲여수~남해 해저터널 ▲고흥 영남~포두 ▲신안 암태 수곡~신석 ▲완도 고금 청용~상정 ▲무안 현경~해제 ▲장흥 유치~영암 금정 등 7개 국도사업이 반영됐다. 또 ▲장성 동화~서삼 ▲나주 금천~화순 도암 ▲담양 고서~창평 등 3개 국지도 사업이 포함됐다. 총 89.4㎞에 이르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데 1조 817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국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이번 달 기본계획 수립과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공사를 발주,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는 목포에서 해상으로 2시간 이상 걸렸던 이동시간이 50분 이내로 크게 단축돼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미 개통한 압해대교(2009년), 김대중대교(2014년), 천사대교(2019년)와 함께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화합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큰 사업 중 하나다. 1998년 남해안관광벨트 '한려대교' 건설계획으로 첫걸음을 뗐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다 마침내 반영됐다. 완공되면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가 10분 내외 직선 단거리로 연결돼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안 수곡~신석, 고흥 영남~포두는 지난해 말 설계를 착수했고, 완도 고금 청용~상정, 무안 현경~해제는 6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장흥 유치~영암 금정은 2023년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3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은 올 상반기 중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고, 담양 고서~창평은 2023년 국비를 요청한 상태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은 빛가람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등으로 증가하는 주변 인구와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남 중부와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장성 동화~서삼은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 고창~담양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49호선의 길목으로, 전남과 전북을 4차로로 연결하게 된다. 장성물류단지 등과 이동거리가 크게 단축돼 광주전남·전북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 고서~창평은 담양가사문화권을 찾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해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본격 착수 단계인 만큼 계획 기간에 준공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차기 국가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은 신덕해수욕장 앞 섭도와 백도를 지나 남해 상남선착장까지 7.3㎞를 이어 현재 1시간20분 이상이 소요되는 여수~남해 길을 3분 이내로 감축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여수 섭도와 바로 앞에 보이는 남해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등 거점병원 11개소 지정 심의

전남도가 30일 전남도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어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안)을 심의했다.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3대 분야 11개 세부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매년 계획수립·평가·보고하도록 해 취약지 주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분만산부인과 5개소, 외래산부인과 4개소, 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 각 1개소 등 총 11개소를 지정했다.

전남도는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위원회는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분석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량대첩축제,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세계 축제로

개막식·해전 재현 등에 디지털 미디어아트·드론 활용

전남도가 오는 9월 23~25일 개최하는 명량대첩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디지털 미디어아트와 융합한 해전을 재현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미흡한 기존 콘텐츠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디지털 미디어아트, 혼합현실(MR), 드론 쇼 등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핵심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30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디지털 미디어아트와 융합한 해전 재현 등 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위상 확립과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한 경험이 있는 양정웅 총감독이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축제는 현대와 전통의 조화, 호국정신과 평화의 메시지를 한 자리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갖고 찾도록 흥행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미디어아트, 혼합현실,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해 야간 개막식, 디지털 해전 재현 등이 지난해와 다른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축제가 대면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 대표축제인 명량대첩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시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전남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27개사 모집

제조·지식서비스 기업

광주시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있는 제조,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프리(Pre) 명품강소기업 8개사, 명품강소기업 19개사 등 27개사를 모집한다.

프리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의지가 큰 지역 유망 중소기업 100여 곳을 발굴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매년 15억여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손항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진단, 성장전략 수립, 국내 판매와 해외수출 등 집중 지원과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지역스타기업이나 글로벌강소기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100여 개의 명품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종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지역스타기업에 61개사, 지역혁신선도기업 4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34개사, 월드클래스300에 6개사,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5개사, 중견기업육성사업 2개사 등 총 112개 지역기업이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다음달 개최

'치매愛 희망을 나누다' 주제

광주시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2022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愛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치매예방을 위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시, 광주광역치매센터,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공동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일상화 조치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한다.

치매 예방에 관심있는 시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0일까지 각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및 유선으로 사전접수하면 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걷기는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갖고,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